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4》를 지도하시고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서부지구 작전비행장을 찾으시고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를 지도하시였다.

오전 9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타신 비행기가 서부지구 작전비행장에 도착하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천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애국가 주악된 다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인 리병철 조선인민군 항공군대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출격명령을 내리시였다.

련합부대장조와 군부대장조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대회가 시작되자 요란한 폭음이 울리는 속에 붉은 매들이 련속 하늘로 날아올랐다.

비행지휘성원들은 금상상반전, 전투선회비행, 정지비행, 1만 8,000여m의 상승한도비행, 30m의 초저공비행, 공중기교비행 등 어려운 비행동작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목표구역에 명중탄을 퍼부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비행지휘성원들의 과감하고 능숙한 비행훈련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오전 경기가 끝난 다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서 마련한 야전식사에 초대되시였다.

점심식사의 여가시간에 조선인민군 항



공 및 반항공군협주단의 공연과 조선인민군군악단의 연주회가 진행되어 경기대회의 열기를 한층 북돋아주었다.

오후에도 계속된 경기대회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오금철 항공군상장을 비롯한 비행지휘성원들이 열적의 폭음소리를 높이 울리며 여제날의 자기들의 비행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비행지휘성원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비행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첨단감시기재로 평가한 점수가 종합되고 등수가 결정되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황병서 조선인민군 차수가 시상식발언을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승을 쟁취한 비행지휘성원들과 단위에 직접 시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비행지휘성원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기대회장소에는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오종홍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웅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자폭정신이 탄생한 고향부대이라 는 최상의 평가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몸소 보아주시 비행기를 돌아보시면서 사적비행기관리를 잘하고 만단의 출격태세를 갖추어놓음으로써 언제나 비행훈련의 맨 앞장에 세우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비행훈련실에 들리시여 비행사들이 진행하는 지상비행조종원습기재를 통한 훈련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비행사들의 침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비행사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곳 군부대를 항공군의 본보기, 표준이 될수 있게 마음먹고 꾸리며 전투군무구역과 생활구역은 물론 요소요소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군부대 비행사들과 육탄용사들의 안내들이 출연하는 예술소조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소박하고 진실한 공연을 보면서 군부대 비행사들과 안내들의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뜨겁게 읽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의 비행사들이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싸움준비에 비약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조국의 푸른 하늘을 더욱 굳건히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찾으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찾으시고 공장현대화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1월

18일기계종합공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현대화하자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이 가까운 기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에 필요한 최신설비들을 원만

히 갖추어주는것을 비롯하여 공장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께서 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꾸리자면 설계와 시

공을 잘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중앙의 관록있는 설계집단과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과전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기업소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

신시키며 현대적인 기계생산과 새 제품개발사업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조선로동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 만경봉팀과 소백수팀사이의 남자축구경기,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의 활쏘기경기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만경봉팀과 소백수팀사이의 남자축구경기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경기를 보시면서 인민군대의 체육인들이 사상전, 루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기에서는 소백수팀이 2:0으로 이겼다.

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경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을 완성하여 축구기술수준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체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체육선수들과 감독들이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림으로써 훌륭한 경기성파로 조국의 영예를 만방에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

기선수들의 활쏘기경기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살들이 목표관의 중심에 정확히 들어가 맞을 때마다 잘한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경기에서는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의 활쏘기선수들이 우승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선수들이 활쏘기를 잘한다고 치하하시며 활쏘기경기종목에서 세계패권을 잡자면 다른 체육종목과 마찬가지로 선수들의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세계의 창공에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리겠다는 불타는 열정을 안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 감독들, 지휘성원들이 활쏘기종목을 더욱 발전시켜 국제경기들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